

「부산으로 가는 초고속 열차 속, 출장가는 K씨는 무릎 위에 조그마한 노트북 PC를 놓고 출장업무를 점검하면서 거래처에 전화를 걸고 있다」

몇년 전만 해도 K씨처럼 행선지로 이동하면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생각은 「아직은……」이라고 요원(遙遠)한 것으로 느껴졌다.

치거 차이팅(Leitziger Zeitung)이 독일에서 발간되어 어느 정도의 의사전달(Communication)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으나 만족할 만한 것은 못되었다. 마침내 마르코니가 무선전신을 발명하여 인류에게 동시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목마름에 단비를 뿌려주게 되었고 이에 편승하여 무선은 비약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다.

1960년대 다니엘 벨이 후기산업사회(정보화사회)를 논한 이후 현대산업은 정보와 정보의 이동에 관련한 산업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는 이를 필요로 하는 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필요로 하는 순간에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움직임과 함께 하는 개인용 통신기기의 제공이 필요하다.

개인시간관리자 **무선호출기**

개인용 통신기기의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적 제약없이
자유로운 통화가 가능해졌다.
무선호출기로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무선호출기는
자유를 창출하는 시간관리자인 셈이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용 통신기기가 보급되면서 이제는 언제나(whenever), 어디서든지(wherever)나 그 누구와도(whoever) 시·공간적 제약없이 자유로운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통화에 대한 욕구는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서도 엿볼 수 있듯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종이가 없던 시대에는 양기죽을 의사전달 매체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시·공간적 제약은 극복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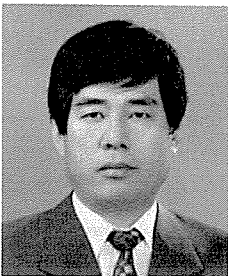
1660년 세계 최초 일간지인 라이프

무선통신의 실용화

이러한 '편리함'과 '휴대'를 실현시키는 것은 무선통신이며 바로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 개인휴대통신)이다. 미래의 이상적인 개인휴대통신의 전 단계로 현재 우리는 휴대전화(Cellular Phone)와 무선호출기(Pager)의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 무선은 커뮤니케이션 매개체로서 국가적 차원의 통제대상이었다. 무선의 사용은 군사목적 이외에는 금기시되어 왔고, 이로 인해 국내 무선산업은 낙후되어 홍콩이나 대만보다 산업화가 늦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의 붕괴 등 동서해빙무드에 발맞춰 80년대 말 북방외교로 인한 남북한 교류의 가능성 증대, 남북한 국력차이로 무선통신의 역제가



金道鎭

(나래이동통신 전무이사)

완화되어 최근 국내에는 무선통신이 급격히 실용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1993년 무선호출 신규사업자의 등장은 무선호출서비스의 질적 양적 개선과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가입자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증가는 신세대를 타깃으로 한 마케팅과 다양한 부가 서비스의 개발, 경쟁 도입에 따른 단말기 가격인하, 사용요금의 인하라는 면도 작용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유선통신의 불편함과 그 한계성, 그리고 무선통신·이동통신에 대한 소비자의 갈증이 결합된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셀룰러폰이나 카폰은 고가(高價)에다가 사용료도 비싸고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훨씬 경제적이고 (수신율을) 믿을 수 있는 무선통신서비스인 무선호출산업이 대중적 보급을 이룰 수 있었다.

삐삐는 족쇄라고 하지만

세간에 '삐삐는 족쇄다'라는 소리가 있다. 사실 삐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자신이 어디를 가든 삐삐가 울리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도록 삐삐는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나 삐삐를 귀찮아 하는 이에게 정작 삐삐를 없애버린다면 그에게 자유가 올까?

무선호출은 전화기 옆에서 전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해 준다. 식당이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고객을 기다리지 않게 해 준다.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는 바람에 쇼펜터에서 쇼핑을 못하거나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는 상황을 삐삐는 방지해 준다. 시간을 알차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게 한다. 유용한 시간의 사용 즉 시(時)테크를 이

루어 준다. 따라서 삐삐는 족쇄가 아니다. 시테크 기기다. 풍요로운 시간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케 하는 오히려 자유를 창출하는 시간관리자(Time-Manager)이다.

시민의 생활필수품

물론, 무선호출기 보급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상 모든 것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지니듯이 부작용은 있다. 예컨대 범죄단체에서 자신들의 연락망으로 사용하여 신속한 완전 범죄를 야기하거나 부모님 모르게 일어난 청소년간의 연락 등으로 비행 청소년의 발생 가능성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고 해서 자동차를 없애고 말을 타고 다닐 것인가? 팔이 저리다고 팔을 잘라 버릴 것인가? 모든 문명의 이기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 삐삐는 이제 사치품이 아니다. 보람된 삶을 살기위한 생활 필수품이다. 시간을 도둑맞지 않게 지켜주는 파수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제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시장개방에 정책배려를

첫째, 무선통신의 다양한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단순한 호출기능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무선호출·무선통신기기가 개발되어야 한다. 앞으로 나올 호출기의 문자서비스를 통한 종합적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무선호출과 경비

시스템의 결합이라든가, 보다 더 풍요롭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끝없는 노력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범 국가적인 무선통신 기술의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화사회를 말로만 부르짖는다고 다가오지는 않는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사업자들의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통신분야에 있어서 결코 선진국 그늘에서 벗어날 수는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무선통신 사업자들의 해외진출의 기회를 열어 이를 바탕으로 통신제일국으로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 국내 무선통신 산업은 타 선진국에 비해 많은 부문에서 늦게 출발테이프를 끊었다. 뒤늦게 출발했다고 선진국들이 그들의 기술을 쉽게 우리에게 전수하거나 노출하지 않는다. 스스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쌓아야 한다. 무선통신 사업자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방향으로 모든 일이 추진되어야 한다.

무선통신 사업은 서비스 산업이다. 서비스 산업이란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부가가치 산업인 무선통신 분야는 더 이상 억압된 국가통제 하에 남아 있을 수 없다. 통신시장개방이 목전(目前)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거대한 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큰 각오가 필요할 때이다. 장기적 안목에서의 정책적 배려와 관심 그리고 투자를 모두에게 바란다. ㉔